

서·남해안권 관광벨트의 해양관광레저인력 수요 분석

박창규*

*국무조정실 서남권등낙후지역투자촉진추진단

Analysis of Demands of Manpower in Southwest Marine Tourism

Chang-Kyu Park*

* Prime Minister's Office, Southwest Islands Development Project Team, Seoul, 110-760, Korea

요 약 : 전남 목포권 중심의 관광개발사업인 서남해안권 레저도시(J프로젝트)과 여수권 중심의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기 위해서는 관광사업시설의 공급뿐만 아니라 신규관광개발사업의 확대에 따른 원활한 신규 인력 도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규모 관광개발계획에 따른 관광시설 조성이 동시에 추진되었을 경우 사업의 완료시점에 인력 수급의 불균형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의 관광사업체 자연증가수요와 계획 중인 해양관광개발 수요를 통합 예측하여 적절한 해양관광레저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양관광레저인력 수요예측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핵심용어 : 해양관광레저인력, 인력 수급, 해양관광자원 개발, J프로젝트, 관광벨트

Abstract : Tourists' needs are changing rapidly and new niche markets, such as nature tourism, eco-tourism, and marine tourism, are flourishing in response to consumer demand. Especially, the estimating demand & supply of manpower in marine tourism is a very important issue for basic tourism HRD policy. This research is focused on the estimation of growing demands of manpower and suggests the method to estimate the proper number of manpower in marine tourism industry.

Key words : Marine tourism leisure manpower, Manpower supply and demand, Marine tourism resource development, J project, Tour belt

1. 서 론

관광레저산업은 서비스에 의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이므로 인력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관광레저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관광수요 및 지역관광개발 공급 규모에 맞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산업 인력이 육성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 해양관광레저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해양관광레저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의 개발이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정보화 및 지식기반 사회를 맞이하여 관광레저산업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인력양성 계획이 미흡하고, 급변하는 사회변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해양관광레저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전라남도도는 향후 10년 내에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J프로젝트), 해남 화원관광단지 개발, 서남권 다도해 해양 복합관광레저단지, 남해안 관광벨트개발, 여수세계박람회, 여수 화양지구 개발 등을 추진함으로써 전남 서·남해안권을 동북아 해양·문화·레저스포츠 관광의 거점으로 성장시킬 계

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5~10년간 전남 서남해안 지역에 대한 해양·레저스포츠 관광 서비스인력의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과학적인 인력수급전망 및 안정적 인력수급대책이 현재까지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전남 서남해안 지역에 대한 해양·레저스포츠 관광 서비스 인력에 대한 안정적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인력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한 신규인력에 대한 과학적인 수요예측과 더불어 우수인력양성 및 공급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서·남해안권의 해양관광레저산업의 적정 인력을 공급하여 향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인력수급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각 사업부문별 인력수요예측을 포함하는 보다 세분화된 인력수급계획이 요망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전남 서·남해안권의 해양관광레저 산업인력수요의 시계열자료를 활용한 기존인력분석 예측과 서·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의 시설별 계획에 근거한 신규인력 수요예측을 실시하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두가지의 수요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서·남해안권의 관광레저인력 총괄수요를 파악하며, 관광레저인력 공급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대표저자 : 정희원, tour817@opc.go.kr, 02-2100-8944

2. 관광레저산업인력의 분류와 특성

2.1 관광레저산업인력의 구조

관광은 본질적으로 서비스 산업이며, 환대산업이기 때문에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고객을 대하는 인력의 전문성, 기술, 능력, 예절 등과 같은 것에 의하여 서비스가 제공되게 된다. 관광레저산업은 서비스에 의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이므로 인력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산업인력의 수급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광주지방노동청, 2006).

관광레저산업의 범위에 대한 구분은 국가별로 상이한데, OECD기준 관광산업, 우리나라의 산업연관표(관광산업)에 대한 분류는 다음의 Table 1과 같다. 우리나라의 관광산업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산업연관표 연구사례(한국관광연구원, 2001)에서 볼 수 있듯이 산업범위가 OECD보다 넓어 포괄적이며, 국내의 다른 연구 및 기준에서에서도 통일성 있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광레저산업의 범위를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2003)」에 포함된 관광산업 표준산업분류와 해양레저 세세분류 항목을 중심으로 다음의 Table 2와 같이 설정하였다. 문화산업(박물관 등), 여객운송업, 음식점업(관광식당)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관광산업에 포함되어 있으나, 관광레저인력 수급 연구와 연계성이 낮아 제외하였다.

따라서 관광레저인력이란 산업연관표상에서 분류한 14개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며, 특히 서·남해안권의 관광개발사업 특성에 맞는 관광레저인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Table 1. OECD standards and the classification of tourism industry on Leontief table

OECD기준 관광산업(KSIC)	산업연관표*	
	1990년 기준 (KOTI)	2001년 기준 (한국관광연구원)
55숙박 및 음식점업 551숙박업 552음식점업 60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601도시간철도운송업 602기타육상운송업 6021정기노선여객운송업 6022비노선여객운송업 61수상운송업 611해상운송업 612내륙수상운송업 62항공운송업 621정기항공운수업 622부정기항공운행사업 63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6306여행사 및 기타여행보조업 92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9214연극, 음악 및 기타예술관련산업 9219달리 분류되지 않은 공연관련산업 923도서관, 기록보존소, 박물관 924운동, 경기 및 기타오락관련산업	343소매업 344음식점 345숙박 346철도여객운송 348도로여객운송 351의항운송 309한 및 내륙수상운송 352항공운송 358기타 운수관련 서비스 360전기통신 395영화 396연극, 음악 및 기타 예술 394문화서비스 397운동 및 경기관련서비스 387타문화오락서비스 399세탁 및 염색 400이발 및 미용 401기타 서비스 402개인서비스	343소매업 344음식점 345숙박 346철도여객운송 348도로여객운송 351의항운송 350연안 및 내륙수상운송 352항공운송 358기타 운수관련 서비스 360전기통신 394영화 396연극, 음악 및 기타 예술 398기타 문화오락서비스 397운동및경기 관련서비스, 개인서비스

* 한국은행 1990년(405 부분), 2001년(402 기본부분, 감탁기)을 기준으로 작성

레저산업은 스포츠, 취미·창작, 오락, 관광부문을 포괄하는 '광의의 레저산업'과 리조트, 테마파크 등 레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협의의 레저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윤, 2001). 본 연구는 협의의 레저산업 개념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산업 개념으로 사용함

Table 2는 통계청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2003)」에 포함된 관광산업 표준산업분류와 해양레저스포츠 세세분류 항목을 기준으로 14개 산업으로 분류한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호텔업(55111), 휴양콘도운영업(55113),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55114),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55119), 일반 및 국제여행업(63311), 국내 여행업(63312), 기타 여행지원 서비스업(63390) 등을 관광산업 분류로, 골프장 운영업(88331), 스키장 운영업(88332), 그 외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88395), 해수욕장 운영업(88921),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88929),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88992), 도박장 운영업(카지노업)(88995) 등을 레저산업분류로 하여 14개 관광레저산업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14개 관광레저산업을 노동부의 「노동력 수요동향조사보고서(2004)」의 '직종 세분류 명칭 및 직업예시'에 따라 세부적인 직종을 제시하였다. 또한, 14개 산업분류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제사회의 발달에 따른 활발한 인적교류로 국제회의의 규모가 확대되어 가고 상황에서, 국제규모의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는 전남의 관광개발 추세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회의업(컨벤션업)과 관련한 직업을 추가로 예시하였다.

Table 2. Exemplification of classified jobs in tourism & leisure industry

산업분류	직업 예시
호텔업	호텔관리자(총지배인, 프런트데스크메니저), 호텔예약사무원, 호텔프린트접수원, 레스토랑메니저, 호텔음식음료부 지배인, 바메니저, 식당관리자, 호텔서비스원, 숙박시설서비스원 등
휴양콘도운영업	콘도관리자(총지배인, 프런트데스크메니저), 콘도예약사무원, 콘도프린트접수원, 레스토랑메니저, 콘도음식음료부 지배인, 바메니저, 식당관리자, 콘도서비스원, 숙박시설서비스원 등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업	수련시설관리자, 숙박시설예약사무원, 프린트접수원, 숙박시설서비스원, 식당관리자 등
기타 관광수련시설운영업	수련시설관리자, 숙박시설예약사무원, 프린트접수원, 숙박시설서비스원, 식당관리자 등
일반 및 국제여행업	여행상품 개발원, 여행관련 사무원(여행사무원, 여행표발행사무원, 예약 및 발권사무원), 관광통역안내원, 국외여행안내원
국내 여행업	여행상품 개발원, 여행관련 사무원(여행사무원, 여행표발행사무원, 예약 및 발권사무원), 관광통역안내원, 국내여행안내원
기타 여행지원서비스업	관광안내소 안내원, 숙식 알선 안내원, 여행자기이드 안내원 등
골프장 운영업	골프장관리자, 골프장캐디, 골프장사 등
스키장 운영업	스키리조트관리자, 스키강사, 스키장관리요원, 스키장안전요원 등
그 외 기타 운동시설운영업	스포츠에이전시 관리자, 스포츠센터운영 관리자 등
해수욕장 운영업	해수욕장 종사원, 안전관리요원 등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수영강사, 오락시설관리자 등
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	놀이시설종사원, 안전관리요원, 입장권발행사무원, 쇼진행원 등
도박장 운영업(카지노업)	카지노관리자, 카지노딜러, 카지노영업감독원 등
국제회의업(컨벤션)	컨퍼런스 및 회의기획사, 컨벤션코디네이터, 국제회의기획자 등

자료: 노동부(2004), 「노동력 수요동향조사 보고서」 참조하여 재구성

2.2 서·남해안권 관광레저산업 개발현황

전남 서·남해안권에 대한 관광개발사업은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서해안 관광벨트사업,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은 전남 서남부권(해남군 산이면, 영암군 삼호읍 일원)에 1~3천만평 규모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2025년까지 계획되고 있다. 현재 F1, 카지노 등 엔터테인먼트 중심의 다양한 관광레저시설이 집적화된 복합관광레저도시로 계획되고 있다.

남해안 관광벨트개발은 남해안의 수려한 자연자원과 다양한 문화유적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연계 개발하여 이 지역을 국제적 수준의 대표적인 국내·외 관광거점지역으로 개발하여 21세기 동북아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Rainbow Coast 21"로 명명된 이 사업의 대상지역은 부산~목포간의 총 23개 시·군이며, 전남 남해안권은 '종합휴양관광권', '역사문화관광권' 등 2개 권역을 중심으로 13개 시군 37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서해안 관광벨트개발은 환황해권시대에 대비한 국제적 해양관광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서해안 지역의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3개 관광거점, 19개 연계관광지를 개발하는 광역 관광개발계획이다. 특히, 전남은 섬 등 해양의 관광잠재력을 적극 활용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고자 전남의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목포 역사문화타운, 무안 창조호 개발 등 10개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와 같이 서·남해안권 관광벨트사업의 지역인 목포권(목포, 강진, 장흥, 신안, 진도, 해남, 완도, 영암, 무안군)과 여수권(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중심의 개발사업 현황 및 시설을 분석하고, 권역별 관광개발사업의 도입시설과 비슷한 규모의 기존 관련업체의 인력현황을 조사하여 관광레저산업인력의 수급 전망을 예측하고자 한다.

숙박시설의 경우, 여수 화양지구의 10개 개발사업에서 총 4676실, 골프장시설의 경우,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등 총 234홀이 개발될 예정이다. 테마파크시설의 경우, 여수 화양지구를 비롯해 총 6개소를 개발할 계획이며, 해양레포츠시설의 경우, 여수 화양지구의 5개 지구에서 총 9개소가 개발될 예정이다. 컨벤션 및 카지노시설의 경우,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여수 오션리조트에서 각 1개소씩 개발할 계획이다(Table 3; 전라남도, 2003; 2004; 2006).

Table 3. Scale of facilities in Southwest development project

구분	개수	세부내용
숙박시설	16,131실	· 여수 화양지구 2,200실
		· 여수 오션리조트 455실
		· 여수 옥룡지구 280실
		· 고흥 보성만지구 50실
		· 보성 해수욕장 휴양타운 46실
		· 해안관광단지 160실
		· 신안 화양지구 180실
		· 해남 화양지구 2,000실
		· 고흥 화양지구 220실
		· 보성 화양지구 100실
골프장시설	306홀	· 여수 화양지구 54홀
		· 여수 남해안지구 18홀
		· 해남 화양지구 27홀
		· 순천 화양지구 36홀
		· 목포 화양지구 9홀
		· 보성 화양지구 27홀
		· 영암 화양지구 36홀
		· 장흥 화양지구 27홀
		· 완도 화양지구 27홀
		· J 프로젝트 72홀

Table 3. (to be continued)

구분	개수	세부내용
테마파크시설	12개소	· 여수 화양지구 1개소
		· 고흥 남열·팔영지구 1개소
		· 해남 화양지구 1개소
		· 고흥 보성만지구 1개소
		· 광양 옥룡지구 1개소
		· 진도 아리랑마을 1개소
		· 여수 오션리조트 1개소
· J 프로젝트 5개소		
해양레포츠시설	12개소	· 여수 화양지구 1개소
		· 여수 오션리조트 1개소
		· 고흥 남열·팔영지구 1개소
		· 해남 화양지구 2개소
		· 보성 해수욕장휴양타운 1개소
		· 해남 땅끝관광지 1개소
		· 목포 삼학도복원사업 1개소
· J 프로젝트 4개소		
카지노시설	2개소	· 여수 오션리조트 1개소
		· 서남해안 관광레저기업도시 1개소
컨벤션시설	2개소	· 여수 오션리조트 1개소
		· 서남해안 관광레저기업도시 1개소

※: 2006년 9월 현재 사업승인을 받아 개발중이거나, 개발예정인 경우만 조사 되었으며, 관광개발사업의 특성상, 시설 규모가 추후 변경되어질 수 있음
 ※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는 2007. 11월 현재 1만실의 관광숙박시설 규모를 계획하고 있으며, 계획승인 여부에 따라 유동적인 사업규모임

3. 서·남해안권 관광레저산업 수요 전망

3.1 인력수요 현황 및 전망의 방법론

1) 수요예측방법론

우리나라에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전체 인력 수급에 관한 논문으로 김 등(1981)은 인구구조의 예상변화에 따른 예상경제활동 참가율을 기준으로 유효노동공급을 추계하고 대분류에 따른 직종별 추세를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인력수요를 예측하였다. 박(1990)은 노동의 고학력화, 성별, 연령별 구성추이를 추가하여 질적 요소를 고려하면서 노동공급을 전망하였다. 노동력 수요의 예측은 한국경제 대한 전망과 생산기술의 변화, 즉 생산과정에서 노동력이 이용되는 취업계수(취업자수/산출액)를 통해 구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다양한 유형별로 구분된 노동력 사이에 아무 대체가능성이 없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은 투입산출분석과 개념이 매우 비슷한 것으로서 최종수요가 총 산출량 수준을 결정한다는 투입산출모형과 자본수요를 결정하는 동태모형과 같은 개념으로서 총산출량이 고용수준을 결정하는 인력수급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산출액의 증감에 따른 상대적 기술집중도의 변동성을 인정하여 전체 산업의 인력수요를 부가가치기준 생산함수에 의하여 노동계수의 변화를 고려한 신규 노동참여인력을 인력공급 교육기관별로 구분하여 노동수급을 연구한 경우도 있다(김과 박, 1986). 노동의 수요가 기본적으로 산출량의 함수이기 때문에 제조업분야의 산업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업종별 산출량과 고용량을 회귀분석모형을 이용하여 기술계열별 인력수요 전망을 한 경우도 있다(박 등, 1987).

관광인력의 수급전망에 관한 연구로 최와 최(1994)는 관광호텔, 여행업체를 중심으로 관광인력의 수요예측을 실시하였다. 추계방식으로는 원단위(종업원수/호텔객실수, 종업원수/여행업체수)를 추정한 후 시계열 자료가 존재하는 관광호텔 객실수 및 여행업체수의 수요예측 결과치를 이용하여 관련업체의 총종사원 수요를 예측하였다. 또한 제주도 관광산업의 인력수급방안의 연구로 허 등(1999)은 대규모 관광시설의 확대에 따라 동종업종 및 이업종간 전문인력의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특정업종 및 특정 직종에서 임금상승, 스카웃 등으로 인한 노동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예측하였다.

2) 관광레저산업인력의 수요전망

본 연구에서 적용한 관광수요의 추정은 기존 관광산업의 발전에 대한 시계열 연장에 따른 신규수요와 대규모 관광레저시설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신규인력 수요를 합산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특히, 대규모 시설에 따른 신규 인력수요는 이미 투자계획이 이루어진 비슷한 규모의 기존 관련업체의 인력현황을 조사하여 이를 대입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대부분의 노동수요 연구는 단위 생산액에 상응하는 노동생산성의 변화추이를 전망함으로써 계획된 생산액 달성을 위한 필요노동량을 추정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형태(s)별(예를 들면, 학력별, 직종별, 기능수준별 등)로 구분하여 인력수요 전망을 행하고 있다. 총고용량을 나타내는 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_s = \sum_i e_{si} x_i \tag{1}$$

여기서 e_{si} 는 산업부분 i의 단위산출액에 상응하는 's'형태의 필요노동력 계수, x_i 는 산업부분 i의 산출액, E_s 는 's'형태의 총고용량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산업연관거래표의 자료가 기초자료로 사용되며, x_i 와 E_s 를 연결시키는 계수 e_{si} 는 불변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응용되고 있는 방법론도 식(1)의 형태와 같은 것이다. 다만 관광레저산업에 대한 수요의 크기는 총산출액 개념보다 관광시설의 확대규모로 적용하였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따른 산출량의 결정은 투자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총산출량 대신에 관광시설의 확대 또는 축소규모로서 대신할 수가 있다(광주지방노동청, 2005).

기존의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기업은 기존 기업들의 시설규모와 시장점유율 등을 감안하여 상품수요의 크기에 대한 예측을 기본으로 하여 생산시설의 규모를 결정한다. 따라서 새로운 시설의 규모와 기존시설규모를 알게 되면 그 산업에서의 상품수요의 크기 또한 대략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적용한 상품수요의 크기에 대한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관광시설규모를 변수로서 채택한 것도 기존의 방법론과 비슷한 예로 볼 수 있다(허 등, 1999).

또한 노동수요의 질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점은 학력, 직종, 기능별 등으로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노동과 자본

간의 대체율은 매우 낮기 때문에 임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해도 두 생산요소간의 대체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러한 특성을 나타내는 업종에서 적용되는 생산기술적인 측면은 생산요소가 크게 자본과 노동만 있다고 가정할 때 두 요소간의 대체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보다는 것의 없는 형태에 매우 가깝게 표현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적용된 신규인력수요예측방법은 식(1)을 바탕으로 e_{si} 는 관광산업부분 i(예; 숙박업, 카지노 등)의 평균시설규모에 상응하는 's'형태(예; 성별, 직종별, 학력별 등)의 필요노동력 계수, x_i 는 관광산업부분 i의 관광시설확대규모이며 E_s 는 's'형태의 총고용량을 나타낸다.

수요전망을 위한 분류 기준을 보면, 산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수준, 직업분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중분류 수준, 학력분류는 대학원, 학사, 전문학사, 고졸이하로 진행할 것이며 인력수요 전망은 기본적으로 한국노동연구원 전망결과를 활용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학력별 전망을 추가하여 차별화를 시도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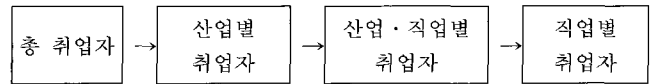


Fig. 1. Flow chart of prospective demand of manpower.

3.2 관광레저산업인력 현황

전남 서·남해안권의 관광레저산업의 인력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2001~2004)를 활용하였다. 관광레저산업의 인력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상에 있는 관광산업분류를 기초로 하여 '관광레저산업' 인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서·남해안권 14개시군을 목포권(1개시 8개군)과 여수권(3개시 2개군)으로 나누어 현황을 분석하여 목포지역과 여수지역의 인력수급계획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Table 4. Total number of businesses, total number of employees, and number of regular employees classified by large areas

(단위 : 개, 명, %)

권역구분	총사업체수	비율	총종사자수	비율	상용종사자수	비율	비율2
전 국	634,434	-	1,774,993	-	697,078	-	39.3
전라남도	25,294	4.0 ^a	60,792	3.4 ^a	19,440	2.8 ^a	32.0
서·남해안권	20,167	79.7 ^b	48,522	79.8 ^b	15,763	81.1 ^b	32.5
목포권	9,218	45.7	21,756	44.8	6,729	42.7	30.9
여수권	10,949	54.3	26,766	55.2	9,034	57.3	33.8

주 1 : 비율=각권역/서·남해안권, 비율2=상용종사자수/총종사자수
 주 2 : 전라남도 비율^a = 전라남도/전국 서·남해안권 비율^a = 서·남해안권/전남

Table 4의 관광레저산업 권역별 총종사자수 비율을 보면 전

남권이 전국 대비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서·남해안권이 79.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서·남해안권중 목포권이 44.8%, 여수권이 55.2%로 여수권이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관광레저산업 총사업체수에서 전라남도 25,294개소로 전국 대비 4.0%로 나타나 매우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전남도내에서 서·남해안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79.7%로 나타나 현재 서·남해안권이 지니는 비중을 시사해 주고 있다. 총종사자수에서는 전국대비 3.4%로 전남의 관광레저사업체의 영세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남의 관광레저산업에서 총종사자수 대비 상용종사자수도 전국 39.3%보다 낮은 32.0%로 더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서·남해안권도 32.5%로 전남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남해안권 중에서 4개시에서 차지하는 총사업체수의 비율이 53.1%로 나머지 10개군에 비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광레저사업체가 도시권에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종사자수와 상용종사자수에 있어서도 4개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54.9%와 61.0%로 나머지 10개군에 비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Table 5. Total number of businesses, total number of employees and number of regular employees classified by districts

(단위 : 개, 명, %)

구 분	총사업체수	비율	총종사자수	비율	상용종사자수	비율	비율*
목포시	3,997	19.8	10,175	21.0	3,787	24.0	37.2
장흥군	533	2.6	1,154	2.4	268	1.7	23.2
강진군	525	2.6	1,131	2.3	298	1.9	26.3
해남군	962	4.8	2,418	5.0	746	4.7	30.9
영암군	694	3.4	1,656	3.4	539	3.4	32.5
무안군	664	3.3	1,406	2.9	381	2.4	27.1
완도군	890	4.4	1,962	4.0	392	2.5	20.0
진도군	456	2.3	923	1.9	210	1.3	22.8
신안군	497	2.5	931	1.9	108	0.7	11.6
여수시	4,219	20.9	10,237	21.1	3,436	21.8	33.6
순천시	3,455	17.1	8,640	17.8	3,063	19.4	35.5
광양시	1,741	8.6	4,383	9.0	1,548	9.8	35.3
고흥군	871	4.3	2,066	4.3	571	3.6	27.6
보성군	663	3.3	1,440	3.0	416	2.6	28.9

주 : 비율=각시군/서·남해안권, 비율*=상용종사자수/총종사자수

특히 목포시의 경우에는 총종사자수 대비 상용종사자수가 전국비율에 가까운 37.2%로 나타나 서·남해안권의 다른 시군에 비해 산업의 발전도가 더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10개군 중에서 총사업체수는 해남군, 완도군, 고흥군, 영암군 순으로 나타났고, 총종사자수는 해남군, 고흥군, 완도군, 영암군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용종사자수는 해남군, 고흥군, 영암군, 완도군 순으로 나타났었다. 총종사자수 대비 상용종사자수의 비율은

영암군, 해남군, 보성군, 고흥군 순으로 나타났다. 신안군은 입지적 특성상 총종사자수 대비 상용종사자수의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총사업체수와 총종사자수에 있어서도 진도군과 함께 서해안권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3.3 관광레저산업인력 수요예측

1) 기존인력분석을 통한 예측

통계청 시군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곡선추정모형(선형, 성장 등)을 활용하여 2007~2010년까지의 관광레저산업 인력수요를 예측하였다.

$$\ln(Y) = b_0 + (b_1 * t) \quad (2)$$

Adjusted R Square 0.00012, F=3,403.141, Signif F=0.003, $b_1 = 0.065598$, T = 58.336, Signif T = 0.0003

단, 부분별 추정에 있어서는 추정이 가능한 부분은 추정하고, 불가능한 부분은 비율을 산정하여 계산하여 Table 6과 같은 인력규모예측 결과를 얻었다.

Table 6. Estimating scale of manpower in existing tourism and leisure industry

(단위 : 명)

시 설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숙박업	580	619	661	706
여행업	854	895	936	977
골프장	293	305	331	375
해양레포츠	94	100	107	114
테마파크	40	42	44	47
합 계	1,860	1,962	2,079	2,219

관광레저산업 전체인력규모가 2007년도 1,860명에서 2010년에는 2,219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시설별로 보면, 골프장, 해양레포츠, 숙박업, 테마파크, 여행업 순으로 인력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 추정인력 1,762명에서 2010년 추정인력이 2,219명으로 총 457명의 인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숙박업은 2006년 추정인력과 비교하여 2010년까지 23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었고, 여행업은 246명, 골프장 121명, 해양레포츠 37명, 테마파크 11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시설별 인력수요 추정 결과를 시설별·권역별 인력현황 분석자료를 토대로 하여 목포권과 여수권으로 권역을 나누어 추산하면 아래 Table 7과 같다. 각 시설별 현황을 권역별로 나누는 비율의 결과를 시설별 추산결과에 반영한 후 시설전체의

기존 관광사업체의 수요를 알아보기 위하여 2000~2003년 시계열자료를 활용하여 2010년까지 관광레저인력 수요를 예측하였으나 과거 관광사업체 인력증가율이 높지 않아 미미한 수준의 증가세를 보여 주었다. 시계열 확장 등을 통한 중장기적 수요분석은 후후 연구의 과제로 본 방법론을 도입하여 연구하고자 함

권역별 비율의 결과 틀린 부분은 인의로 조정하여 전체 비율을 현황에 근접하도록 하였다.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남해안권 관광레저산업의 인력수요 증가는 절대적인 규모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서·남해안권 관광레저산업의 현실에 근거한 시계열에 의존하는 계량적인 방법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현재 계획중인 신규개발 시설규모에 초점을 두어 예측하는 방법에 중점을 둘 수 밖에 없었다.

Table 7. Estimation of demand of manpower classified by large areas, facilities and periods

(단위 : 명)

시설	숙박업		여행사업		골프장		해양레포츠		테마파크		합계	
연도	목포권	여수권	목포권	여수권	목포권	여수권	목포권	여수권	목포권	여수권	목포권	여수권
2007	25	12	12	29	5	8	3	3	1	1	46	53
2008	27	12	12	29	4	8	3	3	1	1	47	53
2009	29	13	12	29	10	16	3	4	1	1	55	63
2010	32	13	12	29	18	26	3	4	1	2	66	74
합계	158	72	72	174	46	75	15	22	4	7	295	350

2) 관광개발사업 시설별 신규인력 수요분석

신규 관광개발계획에 의한 주요 시설별 수요예측은 대규모 관광시설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신규 인력 수요현황의 산출방식을 이미 투자계획이 이루어진 비슷한 규모의 기존 관련업체 혹은 시설의 인력현황을 조사하여 이를 대입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주요 시설은 본 연구의 관광레저산업 분류와 전남 서·남해안권의 해양관광 및 레저스포츠 분야를 고려하여 숙박시설, 골프장시설, 테마파크 시설, 해양레포츠 시설, 카지노시설, 컨벤션시설 등 6가지 주요 시설로 구분하여 그 수요를 예측하였다.

Table 8은 관광레저사업체 시설별 평균 고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된 관광레저사업체 시설에 따른 각 분야의 평균 고용 인력 현황이다.

Table 8. Analysis of average scale of manpower in tourism and leisure industry

(단위 : 명, %)

구 분	조사업체	업체당 평균 인원	비고	
숙박시설	58개	실당 평균 1명	특1급 13개, 특2급 17개, 1급 28개	
골프장	8개	홀당 평균 3명	8개 골프장(207홀 616명)	
테마파크	6개	개소당 평균 30명	6개 테마파크 인력수요	
해양레포츠	9개	개소당 평균 22명	9개 (전남권 4개, 부산권 5개)	
카지노	14개	206명	13개 업체 (남해안개발사업에 적용)	
		2,000명	1개업체 (관광레저 기업도시사업에 적용)	
컨벤션	1개	300명	국제 규모로 고려하여 추정	

주 : 업체당 평균 고용인원은 표본대상지역의 업체수와 고용인력의 비율을 나누어 규모별 평균인원을 산출하였으며(기존 골프장 207홀 616명 근무, 이 경우 207/616 = 1홀당 3.3명이 필요하다고 봄), 관광개발사업 시설의 규모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관광레저산업 인력수요 총괄

관광레저인력 수요조사는 앞에서 설명하였던 사업체 대상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결과와 서·남해안권 신규관광개발사업 시설의 규모별 수요인력에 대한 예측 결과를 통해 전남 서·남해안권 관광레저산업 인력을 추정하였다.

Table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남해안권 관광개발사업 (Table 3)을 통한 신규 인력수요에서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으로 유발되는 인력수요는 7,725명이며,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조성으로 필요한 인력수요는 12,754명으로 예상되어 총 20,479명의 인력수요가 예측된다. 즉, 신규숙박시설이 16,131실이 계획중이므로 일반적인 숙박시설이 객실 1실당 평균 1명 소요 (Table 8)되므로 16,131명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하였다. 여기에 기존 숙박시설의 증가수요 230명을 포함하여 총 16,361명이 서·남해안권의 숙박시설 인력으로 예측되었다.

한편, 해양레포츠 인력은 정확한 사업규모와 시설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300명정도만 예측되었으나, 향후 사업규모와 시설프로그램(스포츠센터 운영 등)에 따라 많은 인력수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신규 관광개발사업을 통하여 향후 3~4년간 연간 최소 5,000여명 정도의 관광레저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Table 9. Overall demands of manpower working tourism and leisure industry in Southwest area

(단위 : 명)

구 분	숙박업	여행사	골프장	해양 레포츠	테마파크	카지노	컨벤션	합계
총 계(A+B)	16,361	246	1,039	301	371	2,206	600	21,124
기존산업 인력수요 (A)	230	246	121	37	11			645
신규관광인력수요 (B=B1+B2)	16,131		918	264	360	2,206	600	20,479
남해안 벨트(B1)	6,131		702	176	210	206	300	7,725
	J프로젝트(B2)	10,000		216	88	150	300	12,754

4. 결 론

전남 목포권 중심의 관광개발사업인 서남해안 레저도시 개발(J프로젝트)과 여수권 중심의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기 위해서는 관광시설의 조성 뿐만 아니라 시설 확대에 따른 신규 인력수요의 공급이 원활해 져야 할 것이다. 대규모 관광개발계획에 따른 관광시설 조성이 동시에 추진되었을 경우 일시에 인력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관광레저산업의 특성상 서비스인력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계획은 현재까지 명확한 시설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Table 3에 나와 있는 최소규모의 시설규모로 산정하여 신규수요를 예측한 것이므로, 향후 도입시설 규모 확대에 따라 더 큰 인력수요 창출이 이루어 질 것임.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노동청(2005), "전남 서남해안권 관광벨트 해양관광·레저스포츠 클러스터 조성관련 인력수급 전망 및 대책" 참조

의 중요성은 산업체의 경영성과와 직결되는 요소이다.

또한 인력의 양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이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관광개발계획들이 인력의 질적 공급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나, 관광레저산업의 이직률은 타 산업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며 이러한 인력관리는 기업 경쟁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신규 관광개발사업에 따른 인력수요의 증가에 대비한 인력 공급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직 등에 따른 새로운 종사자 선발, 채용, 훈련 등에 많은 비용이 수반될 것이다.

관광레저산업은 그 특성상 단순 서비스직에 대한 양적 인력 수요가 많으므로 이를 고려한 실무중심의 교육과 함께, 국제 규모의 시설도입에 대비한 전문인력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신규 및 기존의 관광사업체, 지자체, 노동청, 교육기관간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수립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인력 수급계획이 필요하다.

전남 관광레저산업의 인력에 대한 수요 예측은 양적인 추정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이 꼭 고려되어야 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앞으로 3~5년 정도 후에는 신규 관광개발사업에 따라 기존의 관광레저인력보다 더 많은 인력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광레저인력 수요조사 결과에 의하면 신규관광개발사업을 통한 인력수요에서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으로 유발되는 인력수요는 7,725명이며,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조성으로 필요한 인력수요는 12,754명으로 예상되어 총 20,479명의 인력수요가 예측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나타난 관광레저산업의 수요 전망을 토대로 하여 서·남해안권의 관광레저산업 육성을 위해 ‘서·남해안권 인적자원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역 관광레저인력 수급분석현황과 여건을 통해 지역 직업훈련교육 시스템 구축 및 유망 선도 직업군 발굴과 육성을 위한 심도있는 연구가 향후에 인적자원 개발방안과 함께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광주지방노동청(2005), 전남 서남해안권 관광벨트 해양관광·레저스포츠 클러스터 조성관련 인력수급 전망 및 대책, p. 89.
- [2] 광주지방노동청(2006), 전남 서남권 관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레저분야 신직업군 창출 및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pp. 67-78.
- [3] 김덕기(2001), 관광산업인력 전문화방안, 한국관광연구원, p. 35.
- [4] 김수곤·박원규·하태현(1981), 복지사회의 인력정책과 직업안정, 한국개발연구원, pp. 211-213.
- [5] 김중수·박원규(1986), 산업구조변화와 인력정책, 한국개발연구원, pp. 215-256.
- [6] 김향자(1999), 21세기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인력 개발방안에 대한 소고, 한국관광정책 1999년, pp. 11-12.
- [7] 김향자(2000), ‘관광인력 육성방안’, 계간 한국관광정책, 한국관광연구, pp. 25-26..
- [8] 김향자(2000), ‘직업교육훈련계획-관광산업부문’ 교육부와 한국능력개발원에서 주도한 직업교육훈련5개년, p. 203.
- [9] 문화관광부(2004), 관광레저아카데미 커리큘럼개발, p. 78.
- [10] 문화관광부(2006),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pp. 45-89.
- [11] 박명수(1990), 중장기 노동력 수급전망, 한국노동연구원, p. 65.
- [12] 박영범·정우천·조서현(1987), 산업기술인력과 정책방향, 산업기술연구원, pp. 79-88, pp. 90-145.
- [13] 박창규외(2005), 카지노산업의 이해, 일신사, pp. 267-290.
- [14] 양창식(2003), 문화관광인력 전문화방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산업분과 리포트’, pp. 36-41.
- [15] 엄서호(2001), 레저산업론, 백산출판사, pp. 78-83.
- [16] 전라남도(2003), 전남산업발전계획, pp. 178-183.
- [17] 전라남도(2004), 동북아관광거점 개발육성을 위한 전략방안 연구, pp. 167-175.
- [18] 전라남도(2006), 제4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 pp. 145-156.
- [19] 정보통신부(2003), IT전문인력 수요실태조사, pp. 77-83.
- [20] 정진화 외(2002),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개발 방안, 산업연구원, pp. 58-67.
- [21] 최승담·최영문(1994), 관광인력의 수급전망과 양성체제의 개선방향, 교통개발연구원, pp. 1238-145.
- [22] 통계청,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보고서(2001-2004), pp. 68-93.
- [23] 허향진·최병길·고필수(1999), 제주도 관광산업의 인력 수급 전망에 관한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pp. 89-95.
- [24] 한국관광공사 관광인력개발원(2001), ‘관광교육 기능 활성화 방안(관광시범·실습 시설검토)’, pp. 58-61.’
- [25] 한국관광연구원(2000),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안), p. 89.
- [26] 한국관광공사(2005), 서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pp. 67-93.
- [27] 한국관광협회중앙회(2004), 관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표개발, pp. 178-183.
- [28] 한국노동연구원, 중장기인력수급 전망, pp. 134-142.
- [29] China National Tourism Administration(2002), China Tourism Annual Report 2001, pp. 54-66.
- [30] David, J(2001), Government and Tourism, butterworth Heinemann, pp. 110-112.
- [31] Mitchell, A(1998), Strategic Training Partnership between the State and Geneva: ILO, pp. 69-78.
- [32] Ryan, P(2001), “The School-to-Work Transition : A Cross-Nationa Perspectiv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39, pp. 150-158.
- [33] World Tourism Organization(2002), Tourism Highlights 2001-Updated, pp. 267-278.

원고접수일 : 2007 년 09월 17일

원고채택일 : 2007 년 11월 08일